사무직 여성 1991년 가을호 통권 6호

<서평>

한 인간의 진실된 삶이 보여주는 감동

『조국』 (김진계 구술, 김응교 보고문학, 현장문학사, 1990)

북한방문기, 북한연구작업, 북한서적출판 등을 통해 북한의 이해를 돕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대중들의 생활을 친숙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없던 차에, 이 책은 북한대중의 삶을 잇는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을 극복하고 민족 화합에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주인공 김진계옹은 남한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고 이후 월북한 노동당의 초급 및 중견간부로서 활동하였고 1970년에 공작원으로 남파되어 상륙도중 체포, 18년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의 진술에는 귀순하거나 전향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극도의 부정과 적의가 들어있지 않다. 동시에 북한의 각종 매체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선전적 공식에 따른 것도 아니다. 다만 그가 몸담았던 북한사회 인민의 삶을 담담하게 전달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 책의 중요한 의미는 외부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인의 시각에서 1950~1980년대에 보고 느꼈던 대로 진술되었다는 그 자체에 있다. 이러한 진술형태는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김진계옹의 일생을 통해 한 인간의 진실된 삶이 전해주는 감동과 함께 북한의 사람 사는 모습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